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정성국¹ · 이재란¹ · 김진영¹
탁기주¹ · 오익준¹ · 명의철²

¹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²강원지방경찰청

접 수 : 2014년 4월 14일
수 정 : 2014년 5월 15일
게재승인 : 2014년 5월 15일

본 연구에 자료를 협조해주신 서울지방경찰청
배용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전국
경찰서 과학수사요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책임저자 : 정성국
(110-798)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전화 : +82-10-3930-7780
FAX : +82-2-700-0112
E-mail : jsk7780@hanmail.net

Analysis of Parricide and Filicide in Korea

Sung-Kook Jung¹, Jae-Ran Lee¹, Jin-Young Kim¹, Gi-Joo Taq¹, Ik-Joon Oh¹,
Eui-Cheol Myoung²

¹Scientific Investigation Divisio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eoul, Korea

²Scientific Investigation Division, Gangwon Provincial Police Agency, Chuncheon-si,
Gangwon, Korea

Parricide, the crime of murdering a parent, accounts for about 5% of all homicides. Filicide is the crime of murdering one's own child. This study aimed to review demographic features and crimin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ho committed parricide and filicide in Republic of Korea (ROK). This study i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Police Crime Analysis System, from 2006~2013. We assessed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ver the selected period, 381 parents were killed by their children and 230 children were killed by parents in the ROK. Parricides caused by schizophrenic murders accounted for 39.6% of all cases. Moreover, approximately 44.4% of the perpetrators attempted suicide following the maternal filicide. In our findings, psychiatric illness was a very important predictor in parricide, and these further suggest that young mothers with severe mental illness require careful monitoring by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

Key Words : Parricide, Matricide, Patricide, Schizophrenia, Filicide

서 론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경찰청 자료¹⁾를 기준으로 2012년 995건이었으며 최근 7년간 연평균 약 1,100건 발생했다. 2012년에 발생한 존속살인은 50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에서 약 5%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 7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으로, 일반 살인사건은 물론 가족 간의 살인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형량 또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존속살해(parricide)의 원인이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높다

는 연구는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²⁻⁵⁾ 본 연구진 역시 선행 연구를 통해 국내 존속살해가 일반 살인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약 2.5배, 영국의 약 5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원인이 정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⁶⁾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은 존속살해와 자식살해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살인사건 중 일명 '묻지 마 살인'으로 불리는 무동기의 살인사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의 비율이 높은 가정 내 살인사건을 연구하는 일은 살인사건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존속살해를 포함한 가정 내 살인사건은 일반 살인사건과 달리 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Heid^{7, 8)}는 친부모와 양부모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를 비교·분석하였고, Malmquist⁹⁾는 청소년에 의한 존속살해를 분석하는 등 가족 살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존속살해를 포함한 가족 간 살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족 간 살인에서는 살해 동기는 물론이고 살해 방법이나 사용한 도구, 손상부위, 가족의 추가 살인 및 살해 후 자살 등 일반 살인사건과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 사건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부모살해와 자식살해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정신 질환과의 연관성이 포함된 다양한 특징들을 분석하여, 향후 가정폭력 및 살인 예방과 관련된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총 7년 3개월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중 경찰청 전산망인 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에 입력된 국내 살인사건 기록을 전수 분석했고, 그중에서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사건을 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 지역, 장소, 살해 방법 및 동기 등을 분석했으며, 가해자의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가족 간의 살인사건 중에서 크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자식살해의 두 개 그룹으로 구분했고, 각각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류하여 각 그룹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발생지역, 발생시간, 발생 월, 살해방법, 손상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 in Parricide

Local	Occurrence				Occurrence time*		
	Year		Month				
	No (%)		No (%)		No (%)		No (%)
Gangwon	17 (4.46)	2006	35 (9.19)	1	24 (6.30)	23:00 ~ <04:00	92 (24.15%)
Gyeonggi	83 (21.78)	2007	56 (14.70)	2	34 (8.92)	04:00 ~ <18:00	179 (46.98%)
Gyeongsangnam	18 (4.72)	2008	42 (11.02)	3	38 (9.97)	18:00 ~ <23:00	106 (27.82%)
Geyongsangbuk	18 (4.72)	2009	60 (15.75)	4	41 (10.76)	Homicide methods	No (%)
Gwangju	8 (2.10)	2010	58 (15.22)	5	28 (7.35)	Stab wound	178 (46.72)
Deagu	7 (1.84)	2011	59 (15.49)	6	31 (8.14)	Blunt injury	71 (18.64)
Daejeon	12 (3.15)	2012	54 (14.17)	7	40 (10.5)	Assault	50 (13.12)
Busan	27 (7.09)	2013	17 (4.46)	8	34 (8.92)	Manual strangulation	31 (8.14)
Seoul	68 (17.85)			9	21 (5.51)	Strangulation	12 (3.15)
Ulsan	7 (1.84)			10	43 (11.29)	Fire	11 (2.89)
Incheon	18 (4.72)			11	29 (7.61)	Drug	8 (2.1)
Jeollanam	25 (6.56)			12	18 (4.72)	Throw	7 (1.84)
Jeollabuk	19 (4.99)					Poison	3 (0.79)
Jeju	10 (2.62)		Sex	Assailants	Victims	Asphyxia	3 (0.79)
Chungcheongnam	19 (4.99)		Male	332 (87.14)	175 (45.93)	Contract	2 (0.52)
Chungcheongbuk	25 (6.56)		Female	49 (12.86)	206 (54.07)	etc	5 (1.31)
Total	381			381	381		381

Damage		Motivation		
	No (%)			No (%)
Head	113 (29.66)		Family trouble	188 (49.34)
Neck	111 (29.13)		Mental illness	130 (34.12)
Chest	92 (24.15)		Economic trouble	58 (15.22)
Abdomen	30 (7.87)		Disease	1 (0.26)
Body	12 (3.15)		Unknown	4 (1.05)
Organ	8 (2.10)		Total	381
Mouth & nose	7 (1.84)			
Artery	1 (0.26)		Assailant's suicide	Mental illness
Etc	7 (1.84)	Yes	23 (6.04)	151 (39.63)
Total	381	No	358 (93.96)	230 (60.37)
		Total	381	381

* 4 missing data

위, 살해 후 자살 유무, 살해 동기 및 정신질환 치료 병력 등의 항목을 분석했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부친살해(patricides)와 모친살해(matricide)로 구분했으며, 자식살해(filicide)의 경우 가해자가 부친인 경우(paternal filicide)와 모친(maternal filicide)인 경우를 구분하여 자식살해 후 자살(filicide-suicide), 피해자 연령, 가해자 정신병력 등을 포함한 각각의 특징을 비교·분석했다. 본 연구 자료는 수사 자료 재검색을 통해 판결 후 일반 살인사건이 존속살해로 밝혀진 경우 등이 포함됐고, 자식살해의 경우 영아유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발생 건수와 경찰서의 전산 입력 건수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방법으로는 존속살해 및 자식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가해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연관성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실시했으며, 자식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가해자의 자살 유무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했다.

모든 통계 분석은 통계 소프트웨어 SAS 시스템 9.2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했다.

결 과

1. 존속살해 분석

국내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총 381건을 분리하여, 발생지역, 발생연도, 발생 월, 발생 시간, 살해방법, 손상부위, 살해 동기, 피해자 및 가해자 성별, 자살 유무 및 피의자의 정신질환 유무 등을 분석했다(Table 1). 존속살해의 연간 발생 건수는 2008년이 42건이었지만, 해마다 약 50~6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3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68건(17.9%), 부산 27건(7.1%) 순이었다. 발생 월별로는 10월이 43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2월이 18건(4.7%)으로 가장 드물게 발생했다.

존속살해 방법으로는 칼과 같은 예기에 의한 살인이 178건(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둔기 71건(18.6%), 폭행 50건(13.1%), 목을 조르는 액사 31건(8.1%)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요 손상부위는 두부가 113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가 111건(29.1%), 흉부가 92건(24.2%)이었다. 살해 후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23건(6.0%)이었고, 시신을 유기한 경우는 21건(5.5%)이었다. 존속살해의 피해자인 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206명(54.1%)으로 남성(45.9%)보다 많았고,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이 332명(87.1%)이 여성(12.9%)보다 많았다. 피의자가 우울증 및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은 151건(39.6%)이었다. 존속살해의 동기는 가정불화가 188건(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130건(34.1%), 경제

Table 2. Frequencies for Relationship between Assailant and Victim

Assailant/victim	No (%)
Son→Father	154 (40.42)
Son→Mother	149 (39.11)
Daughter→Father	9 (2.36)
Daughter→Mother	26 (6.82)
Son-in-law→Mother-in-law	4 (1.05)
Son-in-law→Father-in-law	6 (1.57)
Daughter-in-law→Father-in-law	1 (0.26)
Daughter-in-law→Mother-in-law	9 (2.36)
Grandson→Grandfather	6 (1.57)
Grandson→Grandmother	13 (3.41)
Granddaughter→Grandfather	1 (0.26)
Granddaughter→Grandmother	3 (0.79)
Total	381

Table 3. Frequencies for Gender and Age Group of Victim by Assailant's Gender

	Father		Mother		Total	
	No (%)		No (%)		No (%)	
Son	154 (50.83)		149 (49.17)		303 (89.64)	
Daughter	9 (25.71)		26 (74.29)		35 (10.36)	
Total	163 (48.22)		175 (51.78)		338 (100.00)	
	Spouse's father		Spouse's mother		Total	
	No (%)		No (%)		No (%)	
Male	4 (40.00)		6 (60.00)		10 (50.00)	
Female	1 (10.00)		9 (90.00)		10 (50.00)	
Total	5 (25.00)		15 (75.00)		20 (100.00)	
Age	30~39 (%)	40~49 (%)	50~59 (%)	60~69 (%)	70~ (%)	Total (%)
Son	1 (0.33)	30 (9.90)	72 (23.76)	91 (30.03)	109 (35.97)	303 (89.64)
Daughter	1 (2.86)	5 (14.29)	7 (20.00)	9 (25.71)	13 (37.14)	35 (10.36)
Total	2 (0.59)	35 (10.36)	79 (23.37)	100 (29.59)	122 (36.09)	338 (100.00)

문제가 58건(15.2%)이었다.

존속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아들
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154건(40.4%), 어머니를 살해

Table 4. Frequencies for Victims by Age Group of Assailant

Age	Father	Mother	Total
	No (%)	No (%)	No (%)
10~19	11 (55.00)	9 (45.00)	20 (5.92)
20~29	37 (41.57)	52 (58.43)	89 (26.33)
30~39	54 (49.09)	56 (50.91)	110 (32.54)
40~49	47 (55.95)	37 (44.05)	84 (24.85)
50~59	21 (75.00)	7 (25.00)	28 (8.28)
60~	5 (71.43)	2 (28.57)	7 (2.07)
Total	175 (51.78)	163 (48.2)	338 (100.00)

하는 사건 149건(39.1%)으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전체의 79.5%였으며 존속살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Table 2). 반면,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26건(6.8%),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9건(2.4%)으로 딸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35건이었으며 전체의 9.2%였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20건(5.2%)이었으며,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23건(6.0%)이었다.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보다 어머니를 살해하는 경우가 2.9배 많았지만, 아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손자가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19건(5.0%)이었고, 손녀가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4건(1.0%)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9건(2.4%)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1건(0.3%)이었다.

피의자에 따른 피해자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부자의 가족관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 in Filicide

Location		Occurrence				Occurrence time	
		Year		Month			
	No (%)		No (%)		No (%)		No (%)
Gangwon	5 (2.17)	2006	26 (11.30)	1	27 (11.74)	23:00 ~ <04:00	35 (15.22)
Gyeonggi	42 (18.26)	2007	32 (13.91)	2	29 (12.61)	04:00 ~ <18:00	139 (60.43)
Gyeongsangnam	17 (7.39)	2008	26 (11.30)	3	23 (10.00)	18:00 ~ <23:00	56 (24.35)
Geyongsangbuk	12 (5.22)	2009	30 (13.04)	4	18 (7.83)		
Gwangju	10 (4.35)	2010	34 (14.78)	5	27 (11.74)	Damage	No (%)
Deagu	13 (5.65)	2011	34 (14.78)	6	15 (6.52)	Neck	113 (49.13)
Daejeon	4 (1.74)	2012	39 (16.96)	7	16 (6.96)	Mouth&nose	36 (15.65)
Busan	30 (13.04)	2013	9 (3.91)	8	18 (7.83)	Head	32 (13.91)
Seoul	28 (12.17)			9	5 (2.17)	Chest	19 (8.26)
Ulsan	8 (3.48)			10	15 (6.52)	Abdomen	16 (6.96)
Incheon	14 (6.09)			11	23 (10.00)	Organ	5 (2.17)
Jeollanam	16 (6.96)			12	14 (6.09)	Artery	2 (0.87)
Jeollabuk	7 (3.04)					Etc	7 (3.04)
Jeju	3 (1.30)		Sex	Assailants	Victims		
Chungcheongnam	15 (6.52)		Male	118 (51.3)	117 (50.87)		
Chungcheongbuk	6 (2.61)		Female	112 (48.7)	113 (49.13)		
Total	230			230	230		230
Homicide methods				Motivation			
	No (%)						No (%)
Manual strangulation	63 (27.39)					Family trouble	102 (44.35)
Stab wound	44 (19.13)					Economic trouble	62 (26.96)
Asphyxia	33 (14.35)					Mental illness	55 (23.91)
Strangulation	29 (12.61)					Unknown	11 (4.78)
Blunt injury	25 (10.87)					Total	230
Assault	14 (6.09)						
Drug	6 (2.61)					Assailant' s Suicide	No (%)
Poison	5 (2.17)					Yes	102 (44.35)
Throw	4 (1.74)					No	128 (55.65)
Fire	3 (1.3)						
Drown	2 (0.87)					Mental Illness	No (%)
Abandonment	1 (0.43)					Yes	66 (28.7)
etc	1 (0.43)					No	164 (71.3)
Total	230			Total			230

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가 50.8%였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경우가 49.2%로 아들은 부모의 성별에 상관없이 살해하는 반면, 딸은 어머니(74.3%)를 아버지(25.7%)보다 약 3배 더 많이 살해했다(Table 3). 배우자의 부모 비교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보다 모가 3배 높게 살해됐다. 존속살해의 피해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122명(36.1%)이었고, 60대가 100명(29.6%)으로 60대 이상이 222명으로 전체의 65.7%이었으며, 30대의 피해자도 2명(0.6%)이 있었다.

반면, 존속살해의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110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89명(26.3%)으로 두 번째로 많아, 20~30대가 199명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10대인 가해자도 20명(5.9%)이었고, 가해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자식도 7명이 있었다(Table 4).

2. 자식살해 분석

자료수집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자식살해는 총 230건이 발생했으며, 2008년에는 26건이었지만 해마다 30~39건 정도 발생했다. 자식살해의 발생지역별은 경기도가 42건(18.3%)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0건(13.0%), 서울 28건(12.1%) 순이었다. 발생 월은 2월이 29건(12.6%)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이 5건(2.2%)으로 가장 적었다(Table 5). 자식살해의 피해자인 자식의 성별은 남성이 117명(50.9%)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자식살해 방법으로는 목을 조르는 액사가 63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기 44건(19.1%), 질식 33건(14.4%), 교사 29건(12.6%) 순이었다. 손상부위는 경부가 113건(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구폐색이 36건(15.7%), 두부 32건(13.9%) 순이었다. 살해 동기는 가정불화가 102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62건(27.0%), 정신질환 55건

(23.9%) 순이었다. 살해 후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102건(44.4%)이었고,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이 66건(28.7%)이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68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는 사건과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각각 47건(20.4%)이었으며,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은 60건(26.1%)이었다(Table 6). 반면, 계모나 계부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은 5건(2.2%) 뿐이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한 사건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자식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피의자에 따른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연관성 분석에서는 아버지는 딸(40.9%)보다는 아들(59.1%)을 많이 살해했으며, 어머니는 아들(43.9%)보다는 딸(56.1%)을 많이 살해했다(Table 7). 또한, 피해자인 자식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도 1건 있었다. 자식살해의 피해자의 연령은 9세 이하가 123명(59.1%)이었고, 10대가 58명(27.9%)로 20세 미만이 전체의 87.0%였다. 또한, 가해자의

Table 6. Frequencies for Relationship between Victim and Assailant

Assailant/Victim	No (%)
Father→Son	68 (29.57)
Father→Daughter	47 (20.43)
Mother→Son	47 (20.43)
Mother→Daughter	60 (26.09)
Stepfather→Daughter	2 (0.87)
Stepmother→Son	1 (0.43)
Stepmother→Daughter	2 (0.87)
Mother-in-law→Daughter-in-law	1 (0.43)
Father-in-law →Daughter-in-law	1 (0.43)
Grandmother→Grandfather	1 (0.43)
Total	230

Table 7. Frequencies for Gender and Age Group of Victim by Assailant's Gender

		Son		Daughter		Total	
		No (%)		No (%)		No (%)	
						P-value	
Father		68 (59.13)		47 (40.87)		115 (51.80)	
Mother		47 (43.93)		60 (56.07)		107 (48.20)	
Total		115 (51.80)		107 (48.20)		222 (100.00)	
		Son-in-law		Daughter-in-law		Total	
		No (%)		No (%)		No (%)	
Fathers-in-law		0 (0.00)		1 (100.00)		1 (50.00)	
Mother-in-law		0 (0.00)		1 (100.00)		1 (50.00)	
Total		0 (0.00)		2 (100.00)		2 (100.00)	
Age	0~9	10~19	20~29	30~39	40~49	50~59	Total
Father	43 (40.57)	39 (36.79)	10 (9.43)	6 (5.66)	7 (6.60)	1 (0.94)	106 (50.96)
Mother	80 (78.43)	19 (18.63)	2 (1.96)	0 (0.00)	1 (0.98)	0 (0.00)	102 (49.04)
Total	123 (59.13)	58 (27.88)	12 (5.77)	6 (2.88)	8 (3.85)	1 (0.48)	208 (100.00)

연령이 높은 경우 아들을 살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 딸을 살해하는 비율이 높았다(Table 8). 자식살해의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95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78명(35.1%)으로 두 번째로 많아, 30~40대가 전체의 77.9%였으며 70대인 가해자도 5명이 있었다.

자식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자식살해 후 약 46%가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성별 간 자살 유무에 대한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고찰

2006년부터 7년 3개월간 국내에서 발생한 존속살해는 총 381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발생한 자식살해는 총 230건이었다. 분석 결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발생하는 존속살해와 자식살해는 살해 동기나 살해 방법, 살해 후 자살 등의 특징에서 일반 살인사건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살해 동기에 있어서 가족 간 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가해자의 정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기간 동안, 존속살해 중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는 약 4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Millaud²⁹⁾ 등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전산 입력 과정에서 병력이 누락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 병력으로 인한 지시적 환청(commanding hallucination)이나 망상성 정신분열(paranoid schizophrenia)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인 분석과는 달리 사건 피해자나 가족들의

Table 8. Frequencies for Victim by Age Group of Assailants

	Son	Daughter	Total
Age	No (%)	No (%)	No (%)
10~19	0 (0.00)	1 (100.00)	1 (0.45)
20~29	6 (35.29)	11 (64.71)	17 (7.66)
30~39	44 (46.32)	51 (53.68)	95 (42.79)
40~49	40 (51.28)	38 (48.72)	78 (35.14)
50~59	10 (71.43)	4 (28.57)	14 (6.31)
60~69	11 (91.67)	1 (8.33)	12 (5.41)
70~	4 (80.00)	1 (20.00)	5 (2.25)
Total	115 (51.80)	107 (48.20)	222 (100.00)

Table 9. Frequencies for Suicide by Assailant's Gender

	Suicide	No suicide	Total	
	No (%)	No (%)	No (%)	P-value
Father	55 (47.83)	60 (52.17)	115 (51.80)	0.4697
Mother	46 (42.99)	61 (57.01)	107 (48.20)	
Total	101 (45.50)	121 (54.50)	222 (100.00)	

진술에 의한 수사 기록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선택 비뚤림(selection bias)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정신분석학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체 자식살해 중에서 가해자의 28.7%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성 등⁵⁾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해외의 연구 결과^{10, 11)}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30대의 젊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에 의한 자식살해의 경우 살해 후 자살(filicide-suicide)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D'Argenio 등¹²⁾의 연구와 같은 결과 나타내, 2차 죽음을 막기 위한 산후 우울증과 같은 가정 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의 성별 분석에서 존속살해는 아들에 의한 살인이 약 80%로 대부분이 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피해자인 부모의 성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가해자가 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망이 아버지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물리적으로 쉽게 제압되며, 양육의 기간이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 표출 및 망상의 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식살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존속살해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피해자인 부모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약 69%였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약 58%로 젊은 아들이 고령의 부모를 살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식살해의 경우 가해자인 부모의 연령대는 30~40대가 전체의 약 77%였으며, 피해자인 자식의 연령대는 10세 미만이 약 58%로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연령의 자식이 많이 살해됐다. 살해 방법이나 피해자의 손상부위를 보면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칼과 같은 예기나 폭행, 둔기가 주로 사용되었고, 손상부위가 경부, 두부, 흉부 등으로 극도의 흉분과 분노에 대한 표출이 무차별적 폭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해 후 피해자나 범행에 대한 공포를 느껴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을 덮어 가리는 행동을 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자식살해에서 어린 자식은 쉽게 제압당해, 목을 조르는 액사나 비구폐색과 같은 질식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최소시간 내에 사망케 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살해 동기는 존속살해의 경우 정신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가정 폭력과 경제적인 문제가 두 번째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보험금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살인하는 자식이 늘고 있어 금전적 원인이 가족 살인의 큰 요인이었다. 또한, 자식에 대한 가정 내 폭력과 폭언이 성인이 된 후에 존속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한 발생요인을 상승시켰다.

자식살해에서는 부모의 약 46%가 자식살해 후 자살하여, 일반 살인사건은 물론 존속살인을 포함한 가족 간 살인에서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 자식이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

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해자인 부모의 약 29%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소 증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과 연관성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존속살해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95%에서 방화나 매장과 같이 시체를 은닉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이러한 범죄 행동 패턴은 향후 수사상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식 살인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계부와 계모에 의한 살인은 약 2%로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해, 아동살인에 있어 계-부모에 의한 살인 발생 비율이 높을 거라는 왜곡된 인식을 줄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존속살해와 자식살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마다 줄지 않는 국내 존속살해 원인의 약 40%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정불화나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 간의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발단이 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아동학대 기관과 수사기관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확립 및 가정폭력 부모의 국가적 치료와 교육이 요구되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정 내 인식 및 학교 인성교육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정책적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Police statistical year book 2012. Korean national police a-

- gency 2013.
2. Millaud F, Auclair N, Meunier D. Parricide and mental illness. A study of 12 cases. *Int J Law Psychiatry* 1996;19:173-82.
3. Pal S. Mental disorders in abnormal offenders in Papua New Guinea. *Med Law* 1997;16:87-95.
4. Eronen M, Tiihonen J, Hakola P. Schizophrenia and homicidal behavior. *Schizophr Bull* 1996;22:83-9.
5. Sung MJ, Kim JH. A psychiatric review on filicide. *Korean J Leg Med* 2011;35:7-15.
6. Jung SK, Lee HJ, Lim HS, et al. Association study between Schizophrenia and Parricide in homicide. *Kor J Forensic Sci* 2009;10:88-4.
7. Heide KM. Matricide and stepmatricide victims and offenders: an empirical analysis of U.S. arrest data. *Behav Sci Law* 2013;31:203-14.
8. Heide KM. Patricide and steppatricide victims and offenders: an empirical analysis of U.S. arrest data. *Int J Offender Ther Comp Criminol* 2013;Epub ahead of print.
9. Malmquist CP. Adolescent parricide as a clinical and legal problem. *J Am Acad Psychiatry Law* 2010;38:73-9.
10. Flynn SM, Shaw JJ, Abel KM. Filicide: mental illness in those who kill their children. *PLoS One* 2013;8:e58981.
11. Valença AM, Mendlowicz MV, Nascimento I, et al. Filicide, attempted filicide, and psychotic disorders. *J Forensic Sc* 2011;56:551-4.
12. D'Argenio A, Catania G, Marchetti M. Murder followed by suicide: filicide-suicide mothers in Italy from 1992 to 2010. *J Forensic Sci* 2013;58:419-24.